

## 재미나는 표준이야기

# 내가 바로 대한민국 표준체형?

자신의 신체치수와 체형을 잘 알고 있으면  
앞으로 내 몸에 맞는 편안한 제품들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번 달 영업보고서 작성에 표 대리는 오전 내내 정신이 없다. 손가락 스트레칭이라도 할 겸 잠시 깍지를 끼고 기시개 한 번 켜려 하는데, '지~잉, 지~잉' 요란한 휴대 폰 진동 소리에 잠시 보고서 작성을 멈춘다.

액정 화면에 평소 귀여워하는 치제의 번호가 뜨자 반가운 마음에 열린 전화를 받는다.

"어이~저세, 웬일이야? 이 시간에, 학교 안가는 날인가? 저세는 미술을 전공하는 내학교 졸업반으로 색채디자인 분야로 취업하기 위해 요즘

한창 바쁘다.

"형부! 지금 방학이잖아요.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마지막 사치, 방학이요. 제가 마친 근처에 책 산개 있어서 후배랑 같이 나왔는데..., 저희 점심 안 사주실래요?" 애교 가득한 치제의 목소리.

"우리 예쁜 치제가 왔는데 만사 제쳐두고라도 나가야지. 회사 로비에서 기다려. 업무 정리 좀 하고 바로 내리갈게." 오늘 퇴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맘에 걸리긴 하지만, 여자피곤 점심시간이고 모처럼 찾아온 처제를 살맛시킬 수도 없이 시간 계산을 해 본 후 바로 로비에 내려간다.

"치제~!봐, 나 금방 내려왔지?"

표 대리기 치제를 반갑게 맞는다.

"형부, 오랜만이죠? 지난 번 놀러갔을 때 형부를 못 뵈서 얼마나 서운했다고요. 잠, 인사 나누세요. 이쪽은 제 고등학교 후배 미진이예요. 미진아, 내말대로 우리 형부 정말 밋치지? 치제가 표 대리에게 후배를 인사시킨다.

"안녕하세요? 처음 뵈겠습니다. 이 미진 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미진씨는 뭘 좋아해요? 이 근처에 괜찮은 런치 뷔페가 있는데





어때요? 저제는 언제? 표 내리가 불었다. “네, 좋아요. 그리로 가요.”

셋은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를 시작했고, 치제가 재미있는 말을 꺼낸다.

“형부, 미진이요, 대한민국 표준체형이예요.”  
 “응? 대한민국 표준체형? 나도 대한민국 표준이야~. 이 나이에 살도 없고.”

표 내리가 웃으며 배를 두드려 보이자 치제가 피식 웃으며, “아니, 그게 아니라, 표준체형 한국인 선발대회서 뽑힌 진짜 표준체형 한국인 말예요. 미진이가 세 작년 인가?”

그 때 대한민국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에 뽑혔거든요.”라며 치제가 말을 해보. 치음 듣는 이야기

에 표 내리는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사 미진이가 설명에 나선다.

“언니 말이 맞아요. 2005년도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표준체형 한국인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그 때 20대부터 60대까지 각 성별로 한 명씩 대표체형을 뽑았었죠. 선, 제가 항상 우리나라 대표 체형일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응모 했는데, 실제로 스캔을 해보니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 때 참 재밌었어요.”

“아, 그런 선발대회도 있어? 난 처음 들어봤네. 미스코리아는 매년 뽑아도, 대한민국 표준체형은 잘...” 표 내리, 여전히 의아해 한다.

“하하, 그런 혹시 사이즈 코리아는 들어 보셨어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이요.”  
 미진이가 불고는 이내 “뭣 들어보신 것 같아요.”라며 간단히 설명을 시작한다.

### 표준체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 국내 최초로, 한국인 표준체형을 선정

“사실 대한민국 표준체형 선발대회는 매년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요. 사이즈 코리아라고, 기술표준원에서 한국인 인체치수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벌인 측정사업이네요.

그 사이즈 코리아를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 같아요. 참 특이했던 게 사람 몸을 스캔하는 3차원 스캐너가 있었다고요.”

“그 기계는 스캔 한 번을 통해 260여 개의 인체치수를 뽑아 내줘요. 물론 자신의 체형도 있는 그대로 저장 돼 데이터화기 되고요.”

“어? 그거 꼭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던단 말야?” 표 내리가 놀라는 표정으로 묻는다.



“네, 원하시면 직접 가서 스캔 하실 수 있어요. 기술표준원 관계자분에 따르면, 그렇게 전국적으로 측정돼 모인 데이터들을 우리 한국인들의 체형과 신체 사이즈에 맞는 옷, 신발, 자동차, 가구, 여러 공간들....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거라고 하더군요. 세계적으로도 사이즈 USA, 사이즈 UK, 사이즈 JAPAN, 사이즈 FRANCE, 다 있더라구요. 사이즈 코리아가 세계에서 4번째라고 들었어요.

저는 스캔한 제 체형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USB 안에요.”

미진이 휴대폰에 걸린 USB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미진씨, 나도 그 스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 수 있죠?”

### 표준 TIP

#### 한국인 표준체형과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범국민적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을 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을 주기로 진행되던 인체치수조사사업의 최첨단 버전인 'Size Korea'는 과학적이고 업그레이드된 측정 방법과 도구들을 사용해 직접 측정을 하였고, 세계에서 4번째로 3차원 인체스캐너를 도입해 3차원 측정을 실시, 그리고 인체의 생활 속 움직임 범위를 측정할 동적 측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80만 종의 인체치수와 3만 6천 종의 한국인 디지털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인체표준정보 데이터는 모든 한국인이 봄이 편안한 생활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어 질 것이며,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몸에 잘 맞아 편안한 생활공간과 각종 생활제품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술표준원은 'Size Korea'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체측정사업을 벌이고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확대하여 각 산업계가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체표준정보를 통해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기술표준 2008.11

# 쓰여진 모든 것의 소중한 '기록관리시스템' 표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면?



상상해 보세요.

만약 저 사진 속의 모든 장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영화 '투모로우(원제: The Day After Tomorrow)'를 본 적이 있는 독자라면 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투모로우'는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빙하가 노래하여 지구의 북반구가 빙하로 뒤덮이는 재난을 가정한 영화입니다.

엄청난 양의 빙하와 눈에 뒤덮여 버리기 직전, 영화 속 주인공들은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도서관



관으로 숨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자, 등장인물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책을 땀감으로 쓰기로 합니다. 주인공은 급한 마음에 아무 책이나 벽난로로 던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안돼! 그 책은 안돼! 그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이라고!"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죠.



만약, 주인공이 땀감으로 쓰리던 책이 인쇄본이 아닌 원판이었다면?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인류는 기념비적인 유산이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질 뻔 한 위기를 기적적으로 모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영화에서나 일어난 법한 상황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답니다. 오랜 세월 보존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화재나 홍수 등으로 기록이 유실되는 것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 기록(記錄)

- 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후일의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쓰거나 만드는 정보
- ② 기록의 예 : 출생증명서, x-ray, 이메일 등

이에 기술 발전이 정점에 이른 요즘에는 많은 기관들이 혹시 모를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화재본이 분실되었을 때에도 그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해졌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종이에 인쇄된 자료보다 전자 문서의 디지털 데이터가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저장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들 중에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영구히 보존해야 할 기록들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또한, 누구나 한 번쯤 컴퓨터에 저장해둔 중요한 파일이 날아간 후 복구가 되지 않아 허둥대던 경험이 있듯이 사용자의 실수로 기록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기록의 저장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기록관리시스템 - 정보의 확인부터 폐기까지 한 번에 해결!

이에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는 기록을 적절히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에 기록관리시스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국제 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 ISO 23081 : 기록관리설치 - 기록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 ISO 14721 : 공간 데이터 및 정보신송 체계
- ISO 19005-1 : 문서관리 - 장기보존을 위한 전자 문서파일 형태

상기 국제표준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이 협력·개발하여 마련한 것으로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은 국제표준에 규정된 수행 절차에 따라 정보의 확인-분류-저장-보존-폐기과정을 관리하면서 비용은 감소시키고 이익은 증대시키며 효율성을 높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기록관리 지침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하였습니다.

- KSX ISO 15489-1 : 문헌정보-기록관리 -제1부: 일반사항
- KSX ISO TR 15489-2 : 문헌정보-기록관리 -제2부: 지침

오늘부터라도 KS 규격에 마련되어 있는 기록관리방법을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록도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상기 KS 규격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http://www.standard.go.kr))에서 규격을 열람함으로써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기술표준 2008.11